

[로스쿨 소식]

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‘3644명’ 역대급 출원

- 작년대비 116명 증가... 12회차 중 가장 많은 인원 지원
- 합격률, 9회 53.32→10회 54.06→11회 53.55→12회 ?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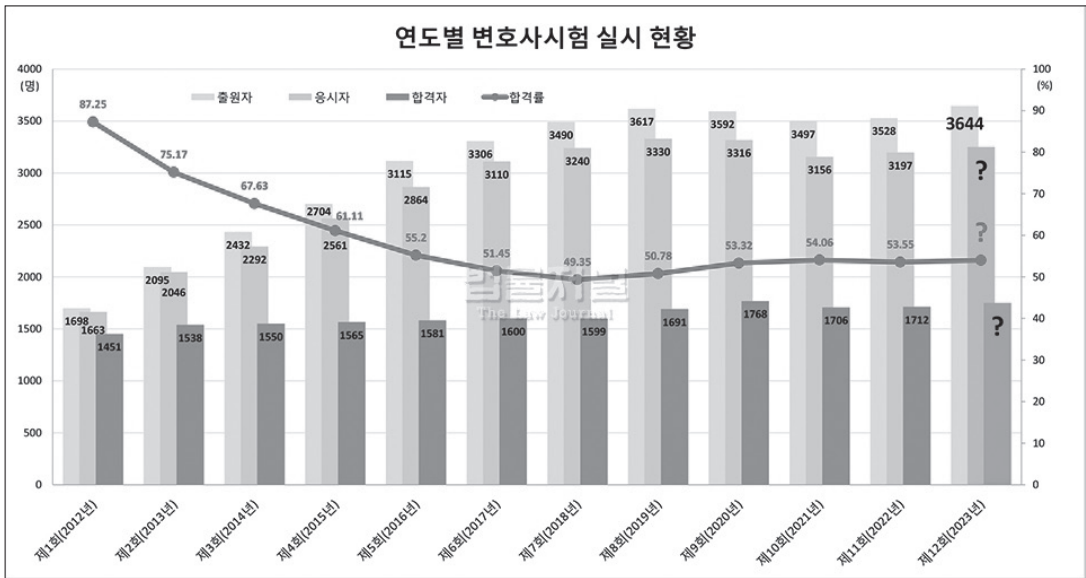
내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는 ‘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’에는 역대 최다 인원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.

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, 총 3,644명이 출원했다.

이는 지난해보다 116명이 늘어난 것으로,

지난해 반등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은 결과다.

역대 출원자는 ▶2012년(제1회) ▶1698명 ▶2013년(제2회) 2095명 ▶2014년(제3회) 2432명 ▶2015년(제4회) 2704명 ▶2016년(제5회) 3115명 ▶2017년(제6회) 3306명 ▶2018년(제7회) 3490명 ▶2019년(제8회)



361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. 다만 ▶2020년(제9회) 3592명으로 감소하면서 ▶2021년(제10회)에는 3497명으로 감소했지만 ▶2022년(제11회)에는 31명이 늘어난 3,528명이었고 올해 ▶2023년(제12회)은 무려 116명이 증가했다.

이에 따라 실제 응시인원 및 합격인원 규모에 관심이 더욱 쏠리면서 최종 합격률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.

변호사시험은 '로스쿨 정원(2,000명) 대비 75% 이상'을 기준으로 매년 1,500~1,600명대를 합격시켜 왔다. 근래 들어 출원자·응시자 대비 약 50%초반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.

참고로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△제1회 87.25%(1451명 합격/1663명 응시) △제2회 75.17%(1538명/2046명) △제3회 67.63%(1550명/2292명) △제4회 61.11%(1565명/2561명) △제5회 55.2%(1581명/2864명) △제6회 51.45%(1600명/3110명) △제7회 49.35%(1599명/3240명) △제8회 50.78%(1691명/3330명) △제9회 53.32%(1768명/3316명)였다.

이어 △제10회는 54.06%(1707명/3156명)였고 지난해 △제11회는 53.55%(1712명/3197명)였다.



<내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에는 3,644명이 출원함으로써 역대 최대 인원의 응시를 예고하면서 합격률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. 사진은 제1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지난 1월 11일 오전 9시경, 변호사시험 고사장 중 한 곳인 서울대학교 인문관, 수험생들이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 고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>

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「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다.

변호사시험은 공법·민사법·형사법에 대한 선택형 및 논술형(사례형·기록형)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논술형(사례형) 필기시험으로 치른다.

구체적 일시,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11월 18일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.

(출처/법률저널)